



한국 출신의 세계적 음악가들을 통해서 본 우리 민족의 기질

강일모 / 문화일보 기자

현존 피아니스트 중 최정상급 연주자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가 지난 10월 20일 예술의 전당에서 내한 연주회를 가졌다. 그는 베토벤의 「소나타」 중 제1번을 포함하여, 쇼팽의 「발라드 4번」 등 정통 피아노 레퍼터리(repertory)를 통해 한국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선사했다.

베토벤의 32 개 「소나타 전집」은 건반 음악의 신약성서라고 불리며, 모든 피아니스트들의 필수 레퍼터리로 자리잡고 있다. 이 신약성서 전곡을 녹음하는 것은 피아니스트들의 꿈이다. 그러나 피아니스트들에게 신약성서 전곡 녹음을 허락한 레코드 회사는 많지 않다.

박하우스, 아라우, 아쉬케나지, 캠프 등 극소수의 선택된 피아니스트들만이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녹음하는 영광을 누렸다. 이 중에서도 전문가들은 아쉬케나지의 녹음이 가장 건강하고, 정확하며, 베토벤적이라고 평하고 있다.

아쉬케나지는 유대계 아버지와 러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구소련의 고리키에서 태어났다. 이후 아쉬케나지는 쇼팽 콩쿨 2위, 차이코프스키 콩쿨 1위의 경력을 바탕으로 세계적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로 맹활약 중이다.

피아노계는 러시아와 독일, 유대 출신 연주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바이올린에는 정경화, 장영주, 제니퍼 고, 강동석, 김영옥씨 등 비교적 폭 넓은 세계적 연주자들을 가지고 있다. 반면, 피아노에는 백건우씨가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차이코프스키 콩쿨 입상자 백혜선씨가 도약을 준비 중일 뿐 대부분의 피아니스트들이 세계적 연주자 대열에는 쉽게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

피아노는 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팔을 뻗고 연주를 해야 한다. 반면, 바이올린은 악기를 몸에 바짝 붙여 바로 코 앞에서 활을 움직이며 연주한다. 그래서 피아노는 보다 지성적 악기로, 바이올

린은 보다 감성적 악기로 분류되기도 한다.

바이올린은 두 줄을 동시에 연주해 화음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단선율을 연주하는 선율 악기이다. 피아노는 선율 및 화성 악기로 열 개의 손가락이 모두 사용된다. 또 두 개의 발도 페달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머리는 항상 따로 노는 四肢를 통제해야 한다.

한국인이 세계 피아노계보다는 바이올린계에서 이름이 높다면, 한국인은 지성적 민족이라기보다 감성적 민족에 가깝다는 가설이 가능하다.

세계적 피아노 제작 회사인 슈타인웨이, 베히슈타인, 쉘벨, 베젠도르퍼 등은 모두 독일계이다. 세계적 바이올린 제작자인 스트라디바리우스, 파르네리, 아마티, 과다니니 등은 모두 이탈리아계이다.

독일인은 보다 이성적이고 이탈리아인이 보다 감성적이라는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는, 한국인은 보다 감성적이라는 가설이 지지될 것이다.♣

95년 11월에 열리는 주요 음악회

- 슬로박 방송교향악단 내한 연주회 : 2~3일, 예술의 전당 음악당
- 켈리스트 요요 마 초청 연주회 : 5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 실내악 마라톤 : 7~8일, 호암아트홀, 신수정, 김영호, 배익환, 김봉, 조영창 등
- 아카펠라 앙상블 탈리스 스킨라스 내한 연주회 : 9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 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회 : 10일, 예술의 전당 음악당
- 레이 브라운 트리오 결성 45주년 기념, 고별 연주회 : 12일, 예술의 전당 음악당
- 아이작 스텐 바이올린 독주회 : 22일, 예술의 전당 음악당